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

징계위원회 심의 통과 교육감 결제만 남아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직권면직 의결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인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의결에 동의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교육감의 결제만 남겨두게 됐다.

도교육청의 이번 직권면직 결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교육 시민단체들이 농성을 하며 반발해 회의를 한 차례 미뤘으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앞서 도교육청 징계위는 지난 달 19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교육부의 직권면직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법외 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실체가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는 교육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분리해 대응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을 내린 이후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봤다.

교육부는 지난 달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압박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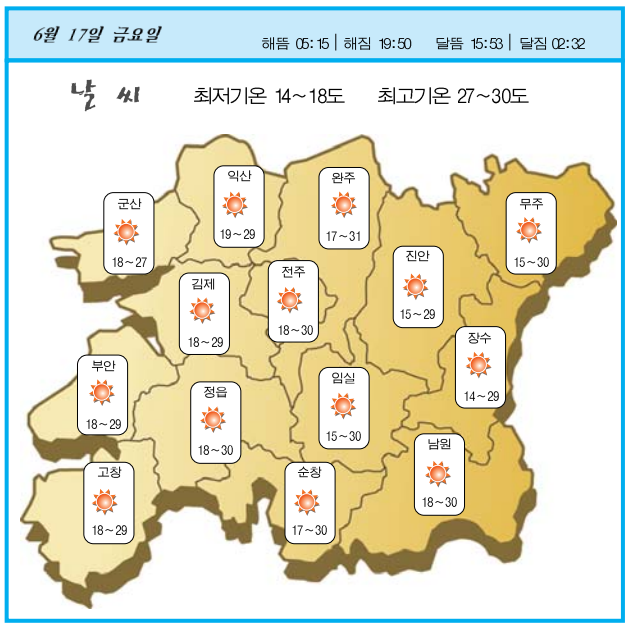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조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리 직권면직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직권면직에 대한 법률적 구제와 함께 전교조 문제의 핵심인 교원노조법 개정 등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 김승수 전주시장이 16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우수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된 전주시 12개 도서관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시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우수 작은도서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을 포함한 평가반을 구성하고 대출 및 이용현황, 운영 실적 등 지난 한 해 활동했던 내용을 평가해 12개관의 우수 작은도서관을 최종 선정했다.



7월 정비사업 준공예정 전주 산성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사업비 124억원 투입 석축호안 자연석호안 축조 · 하천 폭 확장 · 산책로 · 주민 편의시설 등 설치

전주시 동서학동 남고산성에서 전주천까지 흐르는 산성천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후백제의 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추진한 산성천에 대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현재 7월 준공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산성천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하상경사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우려됐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열악한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 필요성을 제기,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의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24억원 투입, 총연장 2.3km 석축호안을 자연석호안으로 축조하고 하천 폭을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했다.

또, 교량(7개소)과 돌담길(1km), 산책로(1.4km), 주민 편익시설(파고라, 운동기구 등) 등이 설치돼 주민과 탐방객들이 걷기 좋은 쾌적한 하천으로 탈바꿈됐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산성천 좌안 돌담길과 산책로(데크) 등이 남고산성과 남고사, 관성묘, 억경대, 만경대(고려왕조를 걱정하는 정몽주 우국시) 등 후백제의 숨결이 서려있는 유적을 탐방하기 위한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7년 한옥마을에서 국립무형유산원간 인도교가 설치된 이후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외연 확대는 물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확대하여 하천의 기본 기능인 치수와 이수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높여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교육청 학생 교사 의견 반영 학교 설계

지난해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 개방형 도서관 등 104건 반영

전북도교육청이 신설 학교 신축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설계에 적극 반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하가초, 익산 배산초 등 3개교 학교 신축 설계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 조사해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바닥 난방이 되는 개방형 도서관, ▲학년별 전시공간인 갤러리 등 104건을 반영시켰다.

24학급의 봉곡초의 경우 미술실에 개수대를 설계한데 이어 꽃그림이 있는 벽과 나무 의자가 있는 도서관, 식생활관에는 다양한 형태의 식탁이 배치됐다.

37학급의 익산 배산초는 상상계단 설치와 교실 바닥은 친환경 소재인 목재로 구성했다. 또한 상담실에는 차음벽이 설치됐고, 운동장 담장에는 장미넝쿨이 심어졌다.

교육청은 올해에도 전주 솔내초, 군산 은파초, 완주 둔산초 신축 설계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건물에 감성화 디자인을 입힐 계획이다.

9월 신축 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12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축 설계과정에서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심리적 안정, 사색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이 돌보이고 주인이 되는 학교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도교육청 학생금연지원센터 전북대 간호대에 위탁

찾아가는 금연교실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학생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흡연학생들에게 자발적 금연 의지를 심어주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금연지원센터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교실과 상시금연교실, 금연유지관리교실 등 3개의 금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금연교실은 그룹 당(10명)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과정 10회와 금연 실패 및 재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 8회로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시금연교실은 학생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입소학생을 대상으로 흡연문제 이외에 가정과 학업, 친구, 이성문제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